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후폭풍 커

중소 협력업체들 매출감소에 판로까지 잃을 위기로 불안감 증폭

롯데홈쇼핑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1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사장은 지난 9일에는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 4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심사 과정에서 미래부 등에 대한 금품로비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1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인허가 연장을 받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감사원

은 지난 3월 롯데홈쇼핑이 제품사육에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사태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자 협력업체들은 사실상 '패닉상태'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 발표 이후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일부 나오다가 현재는 아마도도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중소기업 560곳이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78곳은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매출감소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판로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협력업체들에게 제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들까지 파질 경우 피해 업체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진정호 위원장은 11일 뉴스와지 전화통화에서 "롯데에만 단독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롯데홈쇼핑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협력사들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6월 협력업체들이 모여 롯데홈쇼핑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일부 대책을 들었다"며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내라고 했는데, 롯데홈쇼핑 측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했다"고 설명했다.

/인진수 기자



아웃도어 인기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골프웨어 성장세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모델들이 골프의류와 용품 등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아웃도어 지고 골프웨어 뜨고

2년새 3조원대로 성장

최근 국내 패션업계 기상도 중 하나는 '추락하는 아웃도어'와 '뜨는 골프웨어'로 요약된다.

아웃도어 인기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골프웨어 성장세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9년 35% 수준에 이르던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률은 2013년 19%, 2014년에는 9%로 추락했다.

반면 골프웨어 시장은 2013년 2조 원대 규모에서 2년 새 3조원대로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아웃도어 복종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과도한 영업관행으로 인해 시장의 질서가 이미 크게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월라코리아 등 패션업체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철수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도 형지 등 벌써 2개 업체가 아웃도어 브랜드 철수에 나섰다.

조인영 한신령 애널리스트는 "불황의 지속, 더운 겨울,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 등으로 기존 아웃도어 업체 중 사업 중단 또는 리브랜딩 전략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업체별로 해외 시장 진출, 키즈라인 전개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신광영 기자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

전북농관원, 도내 198개소

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를 단속한 결과 19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5개소는 9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원산지 위반업체 184개소(거짓표시 127, 미표시 57)에 비해 7.6%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숨겨 형사 처벌된 건수도 12.6% 늘었다.

위반 업체 중 위반 정도가 중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물량은 돼지고기가 116톤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9톤, 배추김치 17톤, 닭고기 11톤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87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가 29건(14.6%), 소형 할인매장 13건(6.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배추김치가 81건(40.9%)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56건(28.3%), 돼지고기 44건(22.2%) 순이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농식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이스타항공, 노선별 동계스케줄 예약 오픈

오늘, 오픈 기념 특가 항공권 이벤트 진행... 국제선은 13~14일에

이스타항공이 2016년 각 노선별 동계스케줄 예약을 오픈한다.

2016년~2017년 동계스케줄은 2016년 10월30일부터 2017년 3월25일까지 이용 가능한 항공권이다.

먼저 이달 12일 오후 2시에 국내선 동계스케줄 항공권부터 오픈하며, 오픈 기념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해 국내선 김포-청주-군산-제주 노선특가 항공권을 편도 9,900원(총액운임)부터 제공한다.

중국노선 및 국제선 동계스케줄도 13일과 14일 차례로 오픈한다.

중국노선은 노선별 편도 총액운임 기준 인천-자판(6만7,000원~), 청주-선양(7만2,000원~), 청주-상하이(6만2,000원~), 청주-닝보(9만2,000원~), 청주-연길(10만2,000원~)부터 제공한다.

이밖에 인천-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오카나와(7만9,000원~), 김포-송산, 타이페이(7만9,000원~),

인천-타오위엔, 타이페이(6만9,000원~), 인천-홍콩(5만9,0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11만3,000원~), 인천-방콕(11만4,200원~), 인천-세엠펙(11만3,000원~)부터 제공한다.

한편 각 노선별 동계스케줄 오픈 기념 이벤트는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istarjet.com)와 모바일 웹(앱)에서 확인 및 이용 가능하다. /신광영 기자

전북중기청,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위해 '상황반' 운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 운영한다.

불공정 상황반은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현장상담, 제도안내 등을 통해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법률자문 분쟁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11일부터 기존 신고전화(1670-0808)를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타커대 종합포털(http://pd.smba.go.kr)에 신설,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인력, 기술개발 등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기업 모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생협력 문화가 필요하다"면서 "향후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